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하여
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을 앞당겨나가자!**

민족화합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역사적인 선언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을 열의에 충만되어 있다.

판문점선언에서 북과 남은 민족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래왕과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돌이켜보면 남조선에서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은 보수세력의 발악적책동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루기 위한 투쟁에서 적지 않은 애로와 난관이 조성되었었다. 6.15공동선언발효 이후 북남사이에 활발히 진행되어오던 여러 갈래의 대화와 다방면적인 접촉, 래왕과 협력사업들이 차당봉이 드리워지고 6.15의 성과들은 강그리 윤희발달되었다.

지어 보수세력은 북남관계의 마지막목표였던 개성공업지구마저 완전폐쇄하는 용

남 못할 죄악까지 저질렀다. 그러던 북남관계가 역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과 회담으로 새로운 발전의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조선반도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판문점선언을 통해 북과 남은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의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얼마전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진행된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북과 남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리행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립장을 확인하였으며 실천

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에는 북남공동협력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며 6.15공동선언발효 18돐을 의의있게 기념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있다. 또한 북남장령군 군사회담, 체육회담, 적십자회담의 시기와 장소들을 명기하였으며 10.4선언에서 합의된 동, 서해선철도와 도로들의 연결, 현대화문제를 토의하는 북과남의 등의 개최날자와 장소를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한다는것이 명시되어있다.

현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판문점선언발효이후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여기에 좋은 합의들이 이루어지고있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그만큼 촉진되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정당, 종

자주평화통일과 공동번영의 이정표인 판문점선언을 신속히 리행하여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앞당기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 남측, 해외본부 공동결의문

자주통일의 문이 활짝 열렸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판문점선언)이 채택되었다.

판문점선언은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계승하여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역사적리정표이다.

판문점선언은 오랜 세월 지속되어온 분별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여는 자주통일의 리정표로서 민족자주선언이고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선언이며 평화선언이다.

특히 지난 5월 26일 민족의 화해단합, 평화번영의 상징으로 역사에 아로 새겨진 판문점에서 또다시 진행된 제4차 북남수뇌상봉은 우리 겨레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안겨주고 북남관계발전을 가속화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계기로 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 남, 해외본부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8천만 겨레와 함께 열렬히 환영하며 민족공동의 이 귀중한 합의를 하루빨리 리행해 나갈 굳은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새로운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판문점선언을 적극 실천 해나갈것이다.

판문점선언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하려는 온 겨레의 확고한 지향을 담은 역사적

인 선언이다.

범민련은 겨레의 운명을 위협하는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로지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과 정진에 따라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활짝 열어나갈것이며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나갈것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나가기!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와 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기!

2.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반드시 성사시켜 전면적통일대회합성사의 기반을 마련해나갈것이다.

판문점선언에서는 6.15를 비롯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의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범민련은 판문점선언에서 천명된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켜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민족의 대단합과 자주통일의지를 한껏 높여나갈것이다.

북남공동행사와 각계층의 접촉과 래왕에서 범민련 남측본부가 《선별보러》되는 것을 반대하며 민족자주와 애국애족의 뜻을 같이한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도록 투쟁해나갈것이다.

범민련은 민족공동행사의 성과적개척을 통해 앞으로 온 민족의 힘을 모으는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성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나갈것이다.

3. 민족분별로 발생된 인도적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설것이다.

범민련은 민족분별과 반민족적인 대결로 인하여 발생된 인도적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며 민간교류와 협력을 적극 활성화해나갈것이다.

반통일대결분자들의 집권시기에 조작된 《5.24조치》를 비롯한 각종 《대북제재》와 북과 남의 협력과 교류를 막아나서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나갈것이다.

4.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온갖 법적, 제도적장치를 폐지시키고 범민련 남측본부의 합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나갈것이다.

아직도 남측에는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민족대단결과 자주통일운동을 《리적》으로 몰아 불법시하는 《보안법》이 그대로 존재하고있다.

판문점선언과 《보안법》은 한시도 공존할수 없다.

범민련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발전을 가로막고있는 가장 큰 장애물인 《보안법》을 하루빨리 폐지하기 위해 적극 투쟁할것이다.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범민련 남측본부를 더이상 불법화할 근거는 없다.

우리는 판문점선언을 철

저히 실천하여 범민련 남측본부의 합법화를 반드시 실현할것이다.

5. 범민련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철퇴와 평화협정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설것이다.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보장과 자주통일실현을 위해서는 미국이 우리 민족의 운명문제에 더이상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

미국이 북을 겨냥한 적대행위와 유연의 간판밑에 감행하고있는 모든 《대북제재》를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온 겨레가 투쟁해야 한다.

민족의 통일과 단합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영원히 갈장내기 위하여 우리 민족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벌쳐나자!

범민련 북, 남, 해외본부는 온 겨레와 힘을 모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요구하는 거족적인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쳐나갈것이다.

분별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열었다 분열의 장벽, 넓혀가 평화의 대로, 달려가 통일의 결승선을 향하여!

민족자주의 한결에서 통일대업을 기어이 이룩하여 강성번영의 새봄을 더 활짝 꽃피워나가기!

우리는 판문점선언을 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2018년 6월 2일

역사적인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전격적으로 진행하시어 북남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쳐주시는 것에 대한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세련된 정치실력과 확고한 통일의지는 온 겨레의 품목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있다.

남조선의 민중당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은 《북남수뇌분들이 이렇게 쉽게 만날수 있구나 매우 놀랐다》, 《북남수뇌분들의 격식없는 만남은 북남관계발전의 큰 전진으로 된다》고 평하였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는 《김정은위원장은 등에 번쩍, 서에 번쩍하면서 북남관계개선과 조미수뇌회담의 성공을 위해 총활무진하고있다》, 《조선반도에 불어오던 찬바람을 순간에 날려보내고 북남관계개선과 조미수뇌회담의 불세를 되살려놓았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판문점선언리행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일각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

민족의 래일에 대한 밝은 확신

의 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는 데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리정표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판문점선언의 인크가 마르기도 전에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겨냥한 전쟁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상대를 자국시키는 심중치 못한 행동들이 일어나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호렷놓았으며 온 겨레와 세인의 우려를 자아내게 하였다.

그러던 이 땅에 또 하나의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역사적화석이 펼쳐진 것이었다.

판문점선언과 4.27선언으로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전기를 펼쳐주시는 것에 대한 원수님께서는 불과 20일만에 또다시 전격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어 온 겨레에게 판문점선언리행에 대한 크나큰 신심과 락관에 대하여 서로의 견해를 청취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신 제4차 북남수뇌상봉은 북남관계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놓는 또 하나의 역사적계기 로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민족의 운명과 조선반도의 평화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니시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주시었다. 그이께서 열어주신 대통로를 따라 민족이 평화번영과 통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전진은 더욱 빨리 가게 되었다. 얼마전에 진행된 북남고위급회담에서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리행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립장을 확인하였으며 실천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이 진지하게 협의되었다.

역사의 도전과 역풍속에서도 멈춤없이 북남관계가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은 온 겨레에게 평화번영의 래일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심어주고있다.

리현호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위하여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이 판문점선언을 지지환영하면서 선언의 리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량성수후회회 등 각계 단체 성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민족자주통일대회에서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이온 통일의 새로운 강령적리정표로, 오랜 분별과 대결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시대, 자주통일의 미래를 개척해나갈 길을 밝힌 통일의 리정표로 지지찬동하는 목소리들이 높여 울려나왔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얼마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판문점선언을 적극 실천하고 전면적통일대회합의 기반을 마련하며 《보안법》을 폐지할것 등을 요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하였다.

공동결의문에서 단체는 판문점선언은 우리 민족의 운명

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하려는 온 겨레의 확고한 지향을 담은 역사적인 선언이라고 하면서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로지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과 정진에 따라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활짝 열어나감으로써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나갈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면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민족의 대단합과 자주통일의 기운을 한껏 높여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진보운동단체들의 럽대조직인 민족공동행동도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요구하는 투쟁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적극 벌쳐나가고있다.

한편 남조선에서는 판문점선언을 악랄하게 혐멸으면서 그의 리행을 기를 쓰고 반대해나서는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을 정계리들에 대한 단죄와 규탄의 목소리도 날로 높아가고있다.

얼마전 민주평화당 대변인

은 론평을 발표하여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판문점선언지지결의안의 통과를 반대함에 대하여 비난하면서 《다된 밤에 재뿌리는 것》을 그만들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더불어 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이 낱은 대결적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정성을 차리라고 경고하였다.

민중당 성원들은 얼마전 《자유한국당》 집물앞에서 모임을 가지고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위해서는 선언을 반대해나서는 《자유한국당》을 청산해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판문점선언은 조선반도에 평화를 가져올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라고 하면서 선언의 리행을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미래를 여는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을 정계에서 몰아내는데 앞장설 의지를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평화와 통일실현에서 특기할 사변》

남조선의 언론들과 각계가 역사적인 제4차 북남수뇌상봉이 《평화와 통일실현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고 하면서 적극 지지환영하였다.

언론들은 제4차 북남수뇌상봉이 전격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해 《김정은위원장 문대통령과 전격회담》, 《추출했던 판문점선언리행 탄력, 남북관계 다시 순풍》 등의 제목으로 대서특필하여 보도하였다.

진보정당인 민중당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홍사들》을 비롯한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은 《남북정상이 이렇게 쉽게 만날수 있구나 매우 놀랐다》, 《남북정상의 격식없는 만남은 남북관계에서 큰 전진으로 된다》고 흥분된 심정을 밝히었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판문점 통일각에서 《독특한 정상

회담을 마련한것은 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외교의 극치》라고 하면서 《김정은위원장님의 진심어린 모습은 남북과 전세계에 동포애의 정과 민족대단합의 힘을 충분히 과시하였다》, 《판문점선언리행에 반신반의하던 일각의 불신을 순간에 뒤집어놓았다》, 《남측에 《김정은선언》이 급격히 퍼지고있다》고 격찬하였다.

6.15공동선언선천 남측위원회, 《한국대학생보련합》, 《한국민족애출인총련합》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도 《남북정상회담성사 환영 및 리행결의대회》를 열고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민족과 전세계가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룩한 귀중한 합의를 존중하고 기뻐하고있다》고 하면서 《판문점선언리행의 선봉대》가 될것을 결의해나섰다.

본사기자

《조선 북부핵시험장 폐기, 평화애호립장은 확고부동》

세계 언론 들 보 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이 완전히 폐기된 소식을 세계언론들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이 북부핵시험장을 폐기하였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핵무기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핵시험장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북부핵시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의식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핵시험장폐기는 핵시험장의 모든 경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봉락시키고 경도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하는 동시에 현지에 있던 일부 경비시설들과 관측소들을 폭파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지상의 모든 관측설비들과 연구소들, 경비부대들의 구조물들이 순차적으로 철거되고 해당 성원들이 철수하는데 따라

핵시험장 주변을 완전폐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쿠바신문 《그란마》는 조선이 핵시험장을 폐기하였다, 핵무기연구소 성명에 의하면 방사성물질루출현상은 없었다고 한다. 핵시험장폐기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치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인디아신문 《힌두스탄 타임스》는 이렇게 전하였다.

국제기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몇차례의 거대한 폭음이 울리고 북조선의 핵시험장은 완전히 폐기되었다.

북조선은 핵시험장의 폐기를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평화애호립장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UPI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북조선의 핵무기연구소 성명은 투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핵시험장폐기를 통하여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기여하고있는 공화국정부의 주동적인 평화애호적인 노력이 다시 한번 명백히 확정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핵시험장지를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공화국은 앞으로는 핵무기없는 평화로운 세계, 인류의 꿈과 리상이 실현된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세계평화에호인민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것이라고 성명을 밝혔다.

세네갈인턴테트신문 《세네브》는 공화국 북부핵시험장폐기상황을 국제기자단 성원들이 현지에서 직접 취재활동한데 대해 지적하였다.

중국보도망, 몽골의 문짜메통신, 라오스통신, 인디아의 신문들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 《인디언 익스프레스》, 《힌두》, 《에이셔널 에이취》, 《아시아 카바르 데일리》, 인디아-인디아, ANI통신, 지우스TV 방송, NDTV방송, 수리아의 사나통신, 신문들인 《알 바아스》, 《티슈렌》, 중앙TV방송, 일본의 NHK방송, 베루신들 《엘 코메르세오》, 베네수엘라의 신문들인 《엘우니베르살》, 《올리메스 노르세아스》, 텔레루르TV 방송, VTV방송, 브라질신문 《오라 도 보보》, 중앙아시아 인터넷통신 세에이-뉴스와 민주광고주체사상연구 전권위원회, 에스빠냐 바스고주체사상연구소 인터넷홈페이지를 비롯한 세계언론들이 《북조선 핵시험장 폐기》, 《조선 북부핵시험장 폐기》, 《평화에호립장은 확고부동》 등의 제목들로 우와 같은 내용들을 보도하였다.

본사기자